



# ●● 심터의 장

마 음 의 촛 불 \_ 눈 속 가 득, 눈 물 담 고 세 상 을 보 자

고 사 성 어 \_ 명 학 일 하 사 룡 운 간 (鳴 鶴 日 下 士 龍 雲 間)

한 권 의 책 \_ 씨 앓 을 피 는 가 계

영 화 이 야 기 \_ ① 로 망 스

② 브 로 크 백 마운 틈 (Brokeback Mountain)

연 극 공 연 \_ 그 녀 의 봄

바 둑 묘 수 풀 이 \_ <석 탑 (石 塔) 조 이 기>의 맥 을 이 용

등 산 안 내 \_ 매 봉

골 프 안 내 \_ 드 라이 버 ①



## 마음의 촛불

# 눈 속 가득, 눈물 담고 세상을 보자

우리가 생각 없이 버린 쓰레기가 이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 그러나 자연은 푸른 숲으로 우리의 잘못을 감싸 주고, 새들의 지저귀음으로 희망을 가지라고 하고 있다.

세상이 아무리 꼴 보기 싫고 둔감해도 아예 눈을 감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자기 나름대로 기준과 방법으로 세상을 보면서 때론 소리도 치고, 한숨도 내쉬며, 소주잔을 기울이기도 한다.

그 기준과 방법이 다른 보수적, 진보적, 긍정적, 부정적, 비판적, 안정 지향적, 개혁적, 친여, 친야 등으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그중 제일 많은 건 아마 다음의 두 부류가 아닐까?

첫째는 지극히 나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것. 나, 내 가족, 주변사람들과 관계 있는 일들에만 관심을 두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예컨대 우리 회사가 잘 되는지,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등에는 저절로 눈이 간다.

하지만 환경오염이나 교육환경 변화와 같이 서서히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칠 일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인 것 같지만, 사실 누구나 다 그렇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이 당장 자기에게 영향을 미칠 일들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웬지 지은 죄도 없는데, 선진시민이라고 하기에는 좀 뒤투수가 머쓱한 것만 사실이다.

두 번째는 오지랖 넓은 사람들이다. 세상일에 대한 관심이 남보다 많다. 정치가 어떻게 되고, 경제상황은 어떻게, 남들이 모르는 이런저런 사회비리에 대해 해박하고, 더 나아가 그런 일들이 왜 그

렇게 되는 것인지 사회구조적 분석까지 가끔씩은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오지랖 넓은다는 말은 속된 표현이고, 좋은 말로 하자면 세상을 보는 안목도 넓고, 시국관과 정치적 견해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묘한 공통점이 있다. 다들 우리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고, 특히 남에게 분노한다는

점이다. 친여적이든 야당 기질이 강하건 상관없다. 부자

건 가난하건, 지위가 높고 낮음도 관계없다. 거의

모두가 우리 사회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썩어빠진 사회를 개탄한다. 그리고 분노한다. 특히 자기가 몸담고 있지 않은 분야, 자기와 거리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흥분해서 욕을 해댄다.

내가 보기엔 이 두 번째 부류가 더 문제다. 자기와 관계없는 일에는 아예 신경 끄고 별로 말도 안 하는 사람들보다도 어찌면 더 알파해 보인다. 남을 욕하는 일에는 바쁘지만 제 할 일은 안 하는, 말과 실천이 일치하지 않는, 기본이 안된 사람으로 보이는 경우도 많다.

자,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나 역시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그나마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은 '눈물 어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슬픈 마음으로 사회를 보자는 것이다.



경제가 엉망, 정치는 아예 쳐다보기도 싫을 지경이고, 미성년 매춘이 범람하는 등 사회적 타락도 극심하고, 교육, 환경, 심지어 종교나 언론마저도 한심한 모습들뿐이다. 이런 문제투성이의 사회를 좋다고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놈들이 이 지경을 만들었나, 어떤 놈이 이 썩어빠진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나 분노하기 이전에, 먼저 그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과 절망과 슬픔을 함께 마음으로 느끼지는 것이다.

또 살얼판 같은 세상에서 나 먼저 성공하는 방법을 궁리하기 전에,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힘겨움을 함께 슬퍼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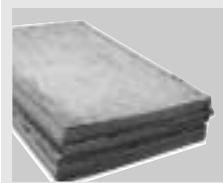
세상을 보며 분노하고, 이 꼴을 만들어 놓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마음속에는 내가 그런 사람들처럼 잘 살지 못한다는 좌절감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욕을 해대면서도 사실은 나도 그 욕먹는 사람들처럼 한 번 돼 보고 싶다는 욕심이 지

나친 것은 아닐까? 정직하게 제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도 힘든 세상이라고 걱정하면서도, 자기는 어떻게든 껍을 내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위에 올라서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것은 아닐까?

슬픔과 눈물은 지식이나 판단이 아닌 마음이다. 정서적 동화다.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기도, 남에 대한 동정과 배려이기도 하다. 더불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하나로 만드는 공동체적 일체감의 출발이다.

그리고 또 하난 중요한 것은 작지만 뭔가 하나는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동력이다. 뭘 많이 알아서, 가진 게 많아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절박하게 느껴야 일이 잘 되는 법이다. 절박하게 느끼기에는 눈물이 최고다. 특히 한 많고 정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정관용 시사에세이 「우울한 세상과의 따뜻한 대화」 중에서]



고사성어

명학일하 사룡운간[鳴鶴日下 士龍雲間]

해 아래 우는 학 순은과 구름 사이의 용 육운의 말재간.

일찍부터 이루어진 중국과의 문화적 교류는 우리 정신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으며, 또한 중국의 사고 방식은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깊이 뿌리박고 있다. 오늘날 우리 생활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지식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고사나 속어, 명언 중에서 가장 함축성 있고 풍자적인 주옥같은 명구들을 소개한다.

육운이란 사람의 자는 용 같은 선비라는 뜻인 사룡(士龍)이다. 여섯 살 때 이미 문장을 지을 줄 알았다. 깨끗하고 곧은 인품에다 재주와 기상이 출중했다. 젊었을 때부터 형인 육기와 함께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문학에서는 육기에 못 미쳤지만, 논쟁에서는 육기

보다 뛰어나 '두 육씨 형제' 라고 불리며 나란히 칭송되었다.

어렸을 때 오나라의 궁중의 문서 담당관인 상서 민홍은 그를 보고 매우 특이하게 여기며 이렇게 평가했다.

"이 아이는 준마의 새끼가 아니면 봉황의 새끼다."

나중에 육운을 현량으로 추천했다. 오나라가 평정되자 낙양으로 떠났다. 당시 육운은 순은이란 사람과 교류가 없었지만, 언젠가 장화가 베푼 연회에서 만났다. 장화가 연회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의했다.

“오늘 모였으니까 평범한 말은 사용하지 맙시다.”

그러자 육운은 손을 들어 이렇게 말했다.

“구름 사이를 오가는 육사룡입니다.”

순은은 이렇게 말했다.

“해 아래 빛나는 순명학입니다.”

여기서 명학(鳴鶴)이란 우짖는 학이란 뜻으로 순은의 자이다. 그러자 육운은 다시 이렇게 말했다.

“이미 푸른 구름이 헤쳐져서 흰 꿩이 눈에 보이는데, 어째서 당신의 화살을 시위에 메겨 활을 쏘지 않습니까?”

순은은 이렇게 말했다.

“원래 구름 사이의 용은 위세 좋게 잘 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의 사슴이나 들의 순록은 어떻습니까. 짐승은 약한데 활은 강하니 이 때문에 손에서 놓는 것이 늦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장화는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자사인 주준은 육운을 불러 종사 직책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사룡(육운)은 오늘날의 안희(공자의 수제자)다”라고 말했다. 중서시랑 벼슬까지 올랐지만, 나중에 육기와 함께 살해당했다.

옛날에 육운은 여행을 하다 아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려 했다. 그러나 한밤중에 길을 잃어버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문득 보니 풀숲 가운데 불빛이 보여 그 쪽으로 가서 외딴집에 겨우 당도해 하룻밤 묵게 되었다.

그 집에서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과 만나 <노자>에 관해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그 남자의 말이 매우 심원했다.

동이 트자 작별을 고하고 십리쯤 가서 친구의 집에 도착했는데, 친구는 “그 부근 수십리 안에는 사람 사는 집이 없다”고 했다. 육운은 비로소 퍼뜩 정신이 들었다. 되돌아가서 지난 밤 묵었던 곳을 열심히 찾아보니 바로 <노자> 연구의 대가인 왕필의 묘가 있었다.

육운은 원래 노장 철학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했으나, 이 이후에 노자에 관한 이해가 깊어졌다.

오나라가 멸망하고 스물 여덟 살의 혈기왕성한 육운과 형 육기는 적국의 수도인 진나라의 수도 낙양으로 향했다. 그의 집안은 오나라에 있어 최고의 가문으로 할아버지 육손은 관우의 죽음으로 분노한 촉나라의 천자 유비를 격파한 명장이었고, 아버지 육항은 진나라 군대와 대치했을 때 적으로부터도 존경을 받던 장군이였다.

육기와 육운 형제도 젊어서 육항의 군대를 둘로 나누어서 거느린 일이 있었다. 이들의 여행길은 불안함과 자부심이 복잡하게 뒤얽혀 있었음에 틀림없다. 순은과 만난 것은 진나라 조정에서 가장 학식이 높고 안면이 있는 장화가 베푼 자리에서였다.

‘구름 사이의 육사룡’이라고 하는 말은 구름 운(雲)자라는 이름과 하늘의 구름 사이라고 하는 이중의 의미로 사용했고, 게다가 구름 사이를 달리는 용을 상징적으로 부각시키면서 그의 재치와 자부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해 아래 순명학’은 육운의 말을 받아서 순은의 자인 날 일(日)자를 사용해서 훌륭하게 응수한 말이다. 육운의 공격과 순은의 방어가 뒤이어 전개되었다. 옆에 있던 장화 등도 쾌재를 불렀음에 틀림없다. 두 사람의 말씨름은 때리면 울리는 것처럼 틈을 두지 않고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된다. 당시 귀족들이 구하고 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재능이었다.

위진시대는 한편으로는 위험이 극에 달한 시대였다. 위나라 명제가 죽고 난 뒤 권력은 불안정했다. 위나라는 사마씨가 권력을 장악함에 따라 제왕은 있으나마나 한 상태였고, 진나라가 성립되고 무제가 죽은 뒤에 일족의 왕들이 제위를 노려 차례로 반란을 일으켰다. 그 가운데 장화는 살해되

고, 육기와 육운도 살해되었다. 그들의 재능은 평화시에는 빛났지만 혼란시에는 무력했다. 이는 입으로만 공론을 일삼는 자들의 한계이다.



[이한의 「지혜를 두드리는 인생의 아홉 가지 문 뭉구」 中에서]



## 한권의 책

# 씨앗을 파는 가게

〈씨앗을 파는 가게〉에는 90여 가지의 씨앗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희망을, 힘을, 사랑이 되어 줄 씨앗이 필요하다면 가게에 들러 씨앗 하나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씨앗을 파는 가게〉는 언제나 문을 열고 있을 테니까요.

〈씨앗을 파는 가게〉에 수록된 이야기들은 곳간의 씨앗과 같습니다. 농부는 봄을 기다려 씨앗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봄이 오면 잘 고른 고랑과 이랑 사이에 그 씨앗을 뿌립니다. 계절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씨앗은 다시 새로운 씨앗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농부의 삶을 지탱하는 양식과 미래의 희망이 씨앗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빈 밭과 같아 언제나 씨앗이 뿌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의 양식이 되는 이야기들과 힘든 세상에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마음에 뿌리는 씨앗입니다. 〈씨앗을 파는 가게〉에서 얻을 수 있는 씨앗들은 힘들고 지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더욱 푸르게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씨앗 하나를 들춰봅니다.

한 여인이 가게에 들어가 무엇을 파느냐 묻자, 천사는 “당신의 가슴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요”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여인은 “마음의 평화와 사랑, 지혜와 행복, 두려움과 슬픔으로부터의 자유”를 달라고 말한다. 천사는 미소를 지으며 “가게를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이 가게에서는 열매는 팔지 않아요. 오직 씨앗만을 팔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씨앗을 파는 가게〉에 담긴 이야기들은 열매가 아니라 씨앗입니다. 똑같은 결과물이라도 시작을 위한 씨앗과 누리기 위한 열매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힘든 상황에 지쳐 있

다면 열매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원한다면 먼저 씨앗을 찾아야 합니다. 시작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씨앗의 꼬리에 붙은 저자의 조언은 씨앗을 얻을 수 있는 길로 독자들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숯과 다이아몬드는 탄소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 똑같은 원소에서 하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하나는 검은 숯이 된다.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라는 원소, 그 원소의 씨앗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그것을 값진 보석으로 만드느냐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꿈이란 노력이라는 다른 말이다. 아무리 좋은 꿈이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책에 수록된 모든 씨앗들에는 이러한 밀거름이 달려 있습니다. 〈씨앗을 파는 가게〉

에 들러 씨앗을 구하고, 마음의 밭에 씨앗을 뿌리고자 하는 독자는 그 씨앗에 뿌리가 돋을 때까지 밀거름을 되새겨 주길 바랍니다.

〈씨앗을 파는 가게〉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저자는 말합니다.

안개 자욱한 아침의 외곽을 서성거린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그리고 길옆의 풀잎이 머금고 있는 이슬에 발걸음이 젖어본 사람은 안다. 이슬은 매섭게 떠오른 태양의 가시광선에 쫓겨 달아난



안개의 흔적이 아니라, 삶의 예약에 가슴이 베인 풀잎의 눈물이라는 것을.

풀잎처럼 생채기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다. 한줌의 이슬도 외면하지 않고, 간직한 풀잎만이 폭풍우에도 꺾이지 않고, 늘 푸른 입술로 빛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는 세상이 냉혹하고 잔인한 언어들로 가득하다 해도 불고 따스한 심장의 파동에 귀를 기울인다면 언제까지나 행복의 빛깔로 웃을 수 있음을.

눈물이 슬픔의 전유물이 아닌 것처럼, 웃음 또한 기쁨의 독재가 아니다. 가슴 저미는 웃음과 감동과 환희의 눈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참된 삶을 노래하고, 그들의 웃음과 눈물은 생각한다. 아름답고 지혜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저자: 희망씨 / 출판사: 미네르바]



## 영화 이야기 로망스

두려움 없는 사랑, 나는 이 사랑에 목숨을 걸었다.

길을 건너듯,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 세상을 떠났으면…….

남편의 과도한 집착과 광적인 사랑으로 인해 이젠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진 윤희, 그녀의 우발적 자살 시도는 누군가의 품으로 끌어당겨져 안기면서 실패로 돌아간다.

거칠고 남루해 보이는 형사 형준,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어쩌면 아는 것 같다. 누군가는 그저 살아있는 것조차도 버겁다는 것을.

그의 눈빛이 건넌던 따스한 위로에 이끌렸을까. 알 수 없는 동질감을 확인하고 싶었을까. 윤희는 형준을 찾아가고, 마주하는 순간 이미 형준으로부터 깊이 사랑 받고 있음을 느낀다.

감옥 같은 결혼으로부터 빠져 나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함을 알기에, 형준 곁에서 느끼는 평

안과 행복감이 안타깝고 두려운 윤희.

고독과 절망에 익숙해진 채로 살아가던 형준 역시, 처음 만난 순간부터 사랑해버린 윤희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기에 그녀를 붙잡지 못한다. 다만, 자기 자신과 그녀를 위로할 뿐.

“울고 싶을 땐 울어요, 그냥 울어버려요.”

이 사랑이 내 영혼을 구원해줄 수 있으리라는 강한 예감을 애써 모른 채하며 각자의 세계로 돌아간 두 사람. 그러나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마주하게 하고, 그들은 서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한다. 세상에 대해 바라는 것도 얻고 싶은 것도 없었던 그들이 유일하게 소망하게 된 단 하나의 사랑. 그러나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긴 세월 윤희만을 사랑했으나 단 한순간도 그녀의 마음을 얻지 못했던 윤희 남편이 그들의 사랑에 대한 분노와 질투와 빠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음모를 감행한다.

거세게 밀려오는 위협 앞에서, 윤희는 형준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용기를 내고, 형준은 윤희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세상과 맞서 싸우려 하는데…….



영화 이야기

# 브로크백 마운틴 (Brokeback Mountain)

전세계를 뒤흔친 위대한 러브 스토리

눈부신 만년설로 뒤덮인 봉우리와 맑고 깊은 계곡, 한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 위에 노니는 수천 마리의 양떼가 장관을 이루고 있는 8월의 브로크백 마운틴.

이곳의 양떼 방목장에서 여름 한 철 함께 일하게 된 갓 스물 두 청년 에니스와 잭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에게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된다.

대자연의 품에서 깊어져간 그들의 우정은 친구 사이의 친밀함 이상으로 발전해간다.

그들 앞에 놓인 낯선 감정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짧은 방목철이 끝나고 다시 만날 기약도 없이 두 사람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다.

결혼해 아이를 낳고 평범한 생활을 하다가 4년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단번에 브로크

백에서 서로에게 가졌던 그 낯선 감정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가능한 한 오랫동안 조심스럽게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에니스, 아무리 무모하다 해도 두 사람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고 싶어하는 잭, 입장은 달랐지만 서로를 향한 애뜻한 마음만은 한결같았던 두 사람은 그 후로 일년에 한 두 번씩 브로크백에서 만난다.

20년간 짧은 만남과 긴 그리움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관계는 뜻밖의 사건으로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 연극공연

# 그녀의 봄

니가 있어 봄은 시작되었다. 사랑한다는 건 조건이 아니라 의지죠.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시간 : 남·북한 통일 선언 몇 년 후

△공간 : 경도(經道), 남, 북한이 통일 시범지구 및 신경제특구로 만든 항구도시, 세월의 무게 위에 다른 이념과 많은 과거를 묻고 새로움이 매일 탄생하는 곳이다. 남·북한의 지역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로 넘쳐나고, 매일매일 꿈을 이루고자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 곳. 꿈틀대는 땅, 경도에서 사람들은 꿈을 꾸고, 운명을 개척해 간다.

■ 이 도시에 김철희, 리원석, 한기주가 있다.

김철희와 리원석은 어릴 적 동무이다. 과거를 묻고 목숨을 도박하는 김철희, 그리고 자신을 숨겨야만 하는 리원석, 김철희와 리원석의 이루지 못한 사랑, 그리고 새롭게 김철희의 삶으로 들어온 남자, 한기주의 어린 사랑. 과거, 현재, 미래가 거미줄처럼 엮여져 있는 경도(經道)에 세 사람의 사랑과 운명이 매달려 있다.

김철희의 집, 어느 날 한기주는 어릴적 자신에게 상처를 준 인물을 찾아달라며 무단 기거를 시작한다. 김철희는 한기주를 쫓아 내려 하지만 번번히 실패하고, 각자 사연을 숨긴 채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는데...

한편 경도호텔 소유주인 소지성의 경호원이 된 리원석은 김철희를 찾아 위험을 알리고, 경도(經道)를 떠나기를 종용한다.

남북을 대표하는 세력들의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북쪽 청운회의 보스 조용길과 남쪽 소지성은 경도호텔 소유권을 두고, 각자의 파워게임을 시작하고, 점차 밝혀지는 그들의 과거와 사연들. 목숨을 걸어야 하는 마지막 순간, 김철희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



■ 현재를 살아가는 인물들, 2006년을 대표하는 배우들

과거를 묻고, 목숨을 도박하는 남자 김철희,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다니는 게이 한기주, 그리고 김철희를 찾아 온 옛 연인 리원석, <그녀의 봄>의 인물들은 생동감이 넘친다.

손에 잡히는 듯 입체적인 캐릭터는 연극을 보고 나서

도 뇌리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그 매력적인 인물들을 연극계의 블록버스터급 배우들이 연기한다.

국립극단에서 탄탄한 연기력을 검증받은 지적이고, 여성적인 배우 최원석, 연우무대 출신으로 차분한 카리스마가 넘치는 배우 신덕호, 뮤지컬을 넘어 정극에 도전하는 채국희, '에쿠우스, 남자 총동, 빨간도깨비' 에서 선 굵은 연기를 보여준 최광일, '차력사와 아코디언' 의 '아코디언' 으로 인상깊은 연기를 보여준 연기파 배우 윤상화 그리고, 정승길, 조은영, 조주현, 김상천 등 연기력을 인정받은 대학로의 중견배우들이 무대에 오른다. 2006년 이들의 변신과 열연에 단연 주목해야 할 것이다.



■ 탄탄한 극본, 삶의 잔향이 묻어나는 위트, 긴장감있는 액션

〈그녀의 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진예술가 지원 선정작, 작·연출인 김학선은 기발한 상상력의 소유자이다.

화제작 〈저 사람 무우당 같다〉 이후 오랜만에 선보이는 그의 이번 작품에 팬들의 기대가 높다. 탄탄한 드라마, 일상에서 묻어나는 위트를 줄 것이며, 특히 연극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실감나는 액션을 선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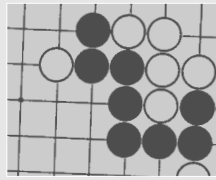
∴ 공연안내

△공연기간 : 2006년 3월 1일 ~ 2006년 4월 9일

△공연시간 : 평일 20시 / 토 16시, 19시 30분 / 일·공휴일 15시, 18시(월 쉼)

△공연장소 : 동숭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 02-762-9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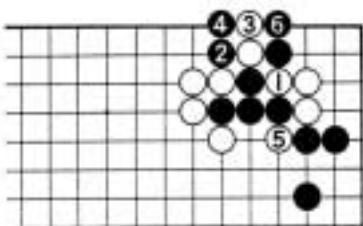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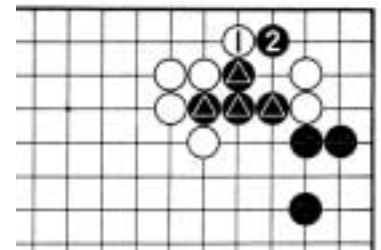
바둑묘수 풀이

〈석탑(石塔)조이기〉의 맥을 이용

바둑은 전략이다. 바둑은 두뇌싸움이다. 두뇌를 쓰지 않고, 전략을 세우지 않고 이기겠다는 뜻심 하나로 전장에 뛰어드는 병사는 하루살이 꿀을 면치 못한다.

[문제도]

白선. 白1의 젓힘에 黑2로 막았기 때문에 멋진 맥이 생겼다. 黑이 끝까지 버티면 黑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수를 찾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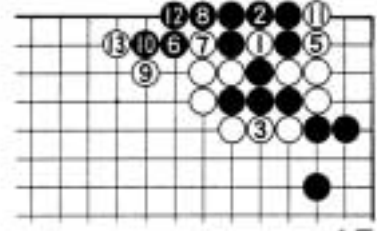


[정답도]

白1로 끊은 데 대해 黑2로 잡으면 白은 3으로 빠져 두 점으로 키워 죽이는 수로서 (석탑 조이기)의 뭉친 꿀을 만들어 黑을 잡을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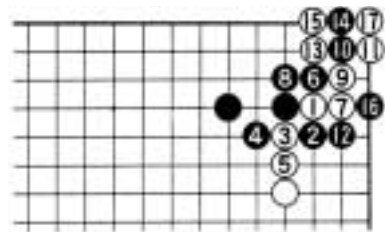
[1도]

정답도에 이어 白1에 먹여치고 3, 5로 조이면 白13까지 黑을 잡을 수 있다.(黑4는 1에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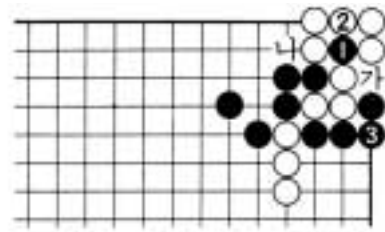
[참고 1도]

비슷한 맥이 보기이다. 수순 중 白11로는 12에 뒤야 한다. 이것은 <귀삼수>라고 하는 <석탑 조이기>의 일종이다.



[참고 2도]

참고 1도의 계속이다. 黑1로 먹여치고 3에 이으면 잡힌다. 白가로 이으면 黑나로 전멸이고 白나 쪽으로 도망가도 黑가로 白석 점은 살 수가 없다.



등산 안내  
매봉

백두산에서 남하하는 백두대간이 금강산 북쪽 분수령부근에서 서남쪽으로 한북정맥을 내주었는데, 이 정맥은 휴전선을 넘어 대성산과 백운산을 솟구치고 서울의 진산인 삼각산으로 달려가다가 동남쪽으로 갈래친 줄기위로 이 매봉을 빚어놓았다.

매봉의 북쪽으로는 전패봉과 명지산이 있고 남으로 깃대봉(910m) 대금산(704m)이 보이며 동쪽에는 칼봉산(900m)이 나란히 앉아 있다.

매봉은 바위지대가 많아 험준한 산으로 사전에 코스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6.5km에 달하는 회목고개에서 승안리에 이르는 코스는 초행자가 오르기에 다소 힘든 거리다.

하산은 회목고개로 내려오는 것보다 정상에서 서쪽능선 길을 따라 마일리로 내려오거나 깃대봉 쪽 갈림길에서 마일리로 내려가야 힘이 덜 든다. 하지만 힘들게 오른다 해도 정상에서 만나는 시원한 조망 앞에서 누구나 산행의 피로를 잊게 된다.

■ 산행

경기도 산의 한 맥점인 매봉은 가평군 하면에 있어서 서울에서 극히 가깝지만 이 산으로 접근하는 길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우선 매봉이 왜 경기도 산의 한 맥점이나 하면 명지산에서 뺀 내려온 능선이 우목봉을 일구고 매봉을 곧추세우면서 조종천을 우측에서 가로막고 가평군을 동서로 분할하다시피 하는 산이기 때문이다.

가평군에 있는 커다란 계곡으로는 가평천계곡과 수락폭포가 있는 승안천계곡, 그리고 용추폭포가 있는 용추계곡을 든다.

가평천에는 화악산, 국망봉, 명지산이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최근 들어 개발과 유명세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경기도 최고의 깨끗한 계곡은 용추폭포계곡이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승안골계곡과 용추계곡(물안골계곡)에 물을 공급해주고 있는 최원거리산이 바로 매봉이다.

계곡의 고틀머리에 솟아있기 때문에 두 계곡을 통하여 매봉을 오르는 어렵다.

그렇다고 현리쪽에서 오르는 것이 쉬우냐 하면 그것도 보통 먼게 아니다. 현리까지의 도로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주로 조종천변으로 나 있는데 조종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산이 매봉이다.

매봉으로 가려면 우선 현리까지 와서 현리에서 매일 3회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매봉아래 마일리로 들어가야 한다. 현리에서 마일리까지 10분도 채 안 걸리는 거리이지만 손님이 적어 하루 3회 운행이 고작이다.

마일리로 들어오면 질매재라는 이름의 작은 협곡을 지나야 하는데, 이 협곡이 마일리를 외부세계와 차단하는 역할을 해주어

안으로 들어가면 전혀 딴 세상으로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마일리 구판장 앞에서 차에서 내려 다리를 건너면 우측으로 조종초등학교 마일분교터가 있다. 비어 있는 분교장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곳을 지나 개울을 따라 올라가면 마일리 안마을이 된다. 마을 이름은 안마을인데, 가옥들은 별로 없고 기업체의 공장형 건물이 넓은 터를 차지하고 있다. 마을 뒤쪽으로는 삼각형 능선봉이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아 있다.

산행은 어느 쪽으로 하든지 상관없다. 동막골은 마일리 구판장 앞에서 다리를 건너지 않고 포장도로를 따라 전패고개 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계곡길이 보이는데, 이곳이 동막골로 바로 뒤에 보이는 산이 매봉이다.

마일분교터 좌측의 긴 능선을 타기로 하고 바로 길가 능선에서 매봉산행을 시작한다. 길은 없지만 걸어 올라가기에는 별 지장이 없다. 처음에는 조금 경사가 급하지만 능선은 464m의 능선봉 이후로는 고도를 낮춰버려 동막골이 가까

워지자 아예 동네로 내려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능선이 아트막해진다. 3.5km나 되는 긴 능선이다.

평범한 육산으로 된 이 능선에서 비쪽 하늘 높이 치솟아 오른 매봉(전위봉)을 바라보는 조망은 그럴 듯 하지만, 별다른 특징이 없는 능선인데도 그런 대로 마음이 평온해지는 산행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낙엽과 잣나무 때문이다.

매봉은 올라가는 쪽의 주능선을 향하여 동그렇게 원을 그리며 병풍을 세운듯 깊은 골짜기를 만들고 있다. 일부 능선의 아래쪽은 깎아지른 단애를 이루고 있다. 위로 올라갈수록 수종은 단순해져 소나무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매봉에서 깃대봉까지의 주능선은 비교적 평탄하다. 높이가 850미터에 가까운 능선이다.

정상으로 가는 도중 길가 숲 옆 단애 아래로 보이는 능선의 햇빛과 나목숲의 산등성이가 빛어 내는 곡선이 마치 복실강아지의 목털처럼 포근해 보인다.

수락폭포가 있는 골짜기인 승안골계곡 매봉산 부근은 부챗살 위쪽처럼 넓고 동으로 갈수록 부채자루처럼 좁아지고 있다. 승안골 계곡과 용추계곡 사이에 솟은 칼봉산이 정겹다.

정상에서가 아니라도 명지산, 화악산, 응봉은 능선에서 거의 다 보인다. 매봉의 장형 명지산이 눈앞에 있다. 1190봉에서 1250봉까지의 능선이 우람하다.

매봉의 둘째 형벌인 우목봉이 지척에 있다. 용추계곡 쪽은 나무에 가려 전망이 훌륭한 편은 못되는 반면 수락폭포 쪽 계곡은 훤히 내려다보인다.

주능선안부에서 매봉으로 먼저 오고 깃대봉을 나중에 가기로 한 것은 매봉이 가깝고 하산길로 택한 능선은 깃대봉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깃대봉으로 가는 능선에서 보는 잣은 바위산, 약수봉, 솟대봉의 풍광은 매봉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능선 스카이라인이다. 매봉에서는 안보이던 삼각점이 깃대봉에 있다.



깃대봉은 매봉보다 높이가 20미터정도 낮지만 전망은 더 좋은 것 같다. 깃대봉에 오면 비로소 가평군의 북한강쪽 지세가 눈에 들어온다.

정상에서는 대금산이 보인다. 매봉을 젓히고 안마을에서 능선을 치고 올라가 대금산으로 가거나 아니면 깃대봉에서 골짜기로 내려가 뒷삼일로 나오는 산행이 그럴 듯하게 보인다.

깃대봉에서 주능선으로 다시 매봉 쪽으로 얼마간 나오면 서쪽 능선으로 내려가는 갈림길이 있다. 낙엽에 쌓여 길 흔적이 애매해 보이기는 해도 길은 길이다.

■ 산행안내

마일리 조중초등학교 마일분교터 좌측개울가 능선 → 464m봉 → 동릉으로 계속 올라가 주능선 → 매봉 → 남릉 → 깃대봉 → 되돌아 나와 주능에서 서릉(등산 때 능선과 나란히 뻗어있음)으로 마일리로 하산

■ 교통안내

서울상봉터미널에서 현리행버스 탑승하여, 현리에서 현리 → 마일리(하루 3회 운행)행 버스탑승, 마일리 구관장에서 하차.





## 골프

# 드라이버 ①

## 스윙의 기본은 움직임 속의 안정감

### 작은 로프트를 살리는 볼의 위치

드라이버는 로프트가 작기 때문에 사이드에서 약간 어퍼 블로우의 기분으로 볼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볼은 왼쪽 발꿈치 앞이나 그보다 약간 왼발 끝 쪽으로 놓는다.

왼발꿈치의 선보다 안쪽으로 볼을 놓으면 상반신이 거북해져서 짝어누르는 것 같은 히트를 해버리기가 쉽다. 그 결과로 클럽 페이스가 볼을 덮친다든지 늦게 맞아 볼의 오른쪽으로 밀어내게 되는 케이스가 적지 않다.

작은 로프트를 살려서 치는 데는 어디까지나 사이드에서 어퍼 블로우의 기분으로 볼을 잡아야만 한다. 드라이버에서 로프트를 효과적으로 치지 못하면 볼은 올라가지 않으며 따라서 날아가는 거리도 짝 뻥지 못한다.

볼의 위치는 왼발꿈치 선상으로 하고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는 일은 없다고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발꿈치와 발끝 사이 그리고 발끝에 가까운 위치가 로프트를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이다.



드라이버는 로프트가 작기 때문에 사이드에서 약간 어퍼 블로우의 기분으로 친다. 볼의 위치는 왼발꿈치와 발끝 사이

### 스탠스가 주는 움직임 속의 안정감

골프의 스윙에서 중요한 것은 움직임 속의 안정감이다. 이 안정감은 스윙과 체형에 알맞은 스탠스에서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일반적으로 스탠스는 어깨너비로 잡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 두 발꿈치의 안쪽에서 어깨너비의 폭을 잡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탠스의 폭은 넓은 쪽이 안정감이 있지만 너무 넓으면 하반신을 움직이기가 거북해지며 몸도 충분히 돌아가지 않는다.

어깨가 넓은 사람, 몸이 덜 유연한 사람은 어깨너비보다 약간 좁은 듯하게 스탠스를 잡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좁으면 몸의 안정감을 잃게 되어 몸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스피드 있는 스윙을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스탠스로 풀스윙을 밸런스로 스윙을 할 수 있었던 스탠스가 당신의 적정 스탠스라고 보면 된다.



드라이버의 스탠스 폭은 양발꿈치의 안쪽과 어깨너비와 똑같이 잡는 것이 표준

### 손과 몸의 간격은 주먹 하나 반 또는 두 개 분

몸과 손의 간격은 약간 넉넉히 잡는 것이 좋다. 주먹 하나 반 내지 2개 분 정도가 기준이다.

손이 몸에 너무 가까우면 몸이 잘 돌아가지 않으며 양팔도 거북해서 힘껏 풀스윙을 하기가 어렵다. 상체를 일으키고 손을 몸에 가까이 접근시키면 몸을 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톱에서 왼쪽 어깨가 내려가 그 결과로 어깨가 돌아가지 않아 클럽을 손으로 들어올려 버리게 된다.

허리에서 위를 앞으로 굽히고, 팔을 한껏 휘둘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원활한 회전운동을 할 수 있는 스탠스 폭이 좋다.